

# 이복현 “우리금융 現회장 재임시에도 유사 불법대출 확인”

(금융감독원장)

**은행지주 이사회의장 간담회 불법·비리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온정적 문화, 내부고발 억제 요인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에 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현 우리금융 회장(임종룡)과 행장(조병규)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8개 은행 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정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현 회장과 현 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며 “불법이나 위규 비리에는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금융권에선 현 경영진의 책임을 다시 압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조병규 행장은 최근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은행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과

만남 이 원장은 조직 내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온정적 조직문화를 비판하며 이 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시행 등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선주 KB금융지주 의장, 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의장, 이정원 하나금융지주 의장, 정찬형 우리금융지주 의장, 이종백 NH농협금융지주 의장, 최경수 BNK금융지주 의장, 최용호 DGB금융지주 의장, 유관우 JB금융지주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 지주의 경영 관리상 취약점으로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 ▲이사회 감시·견제기능의 강화 필요성 ▲준법의식·신상필벌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 지주들이 고위험 금

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 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의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온정적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사고 보고를 지연·은폐하는 요인이 되거나 내부 고발 등을 억제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을 금융 당국에 누락 보고한 우리금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주·은행에 모범관행을 도입한 이유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등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

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과 관련한 당부도 나왔다.

이 원장은 “내년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자회사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별 리스크 익스포저 관리, 조달·운용, 자본계획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CEO 선임 절차를 밟는 은행들에게 “절차가 투명·공정하게 운영돼 모범관행 적용의 우수 적용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한·미, 기준금리 내려도 주담대 금리는 고공행진

금리인하 한 달... 주담대 금리는 ↑ 가계대출 옥죄기에 은행 금리 올려 美도 금리 내렸지만 주담대는 상승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지난 9월부터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하한 미국도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당선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4.05%로 한 달 전(3.74%)과 비교해 0.31%p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 상승 폭은 2022년 9월 0.44%p 이후 가장 크다.

주담대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한 영향이 크다.

주담대 금리는 지표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뤄진다. 지표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내주기 위해 자금을 빌리면서 내는 금리를 말하고,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손실률, 은행 관리 비용 등을 더한 금리를 말한다.

◆ **韓, 가계부채 관리... 은행 가산금리 상승**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한 달 전과 비교해 0.31%p 오른 4.04%로 집계됐다.

고정형 주담대의 지표금리로 작용하는 은행채(AAA·5년물) 금리는 ▲8월 3.22% ▲9월 3.22%로 동일했다가 ▲10월 3.28%로 0.06% 상승했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이번엔 0.31%p 상승했는데,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0.06%p(9월 3.22%→10월 3.28%) 올랐다”며 “그 차이 만큼이 대략적으로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상승 폭”이라고 말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14%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06%p 올랐다.

변동성 주담대의 지표금리로 작용하는 신규취급액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보면 한 달 전과 비교해 0.03%p 내린 3.37%로 집계됐다. 지표금리가 떨어졌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 **美, 물가상승 가능성에 시장금리도 주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30년 만기 주담대 금리는 지난 20일 기준 6.9%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9월 18일 6.15% 이후 0.75%p 올랐다.

미 연준은 지난 9월 0.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11월에는 0.25%p를 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준금리는 0.75%p 떨어진 반면 주담대 금리는 0.

75%p 올랐다.

시장이 연준의 금리인하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과 비교해 2.8% 성장했다. 2분기(3%)보다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1분기(1.6%)에 비하면 상당폭 올랐다. 비농업부문 고용건수는 10월 1만2000건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4만2000건 줄었지만 허리케인 헬린과 밀턴, 그리고 보잉의 파업 여파로 인한 고용 쇼크라는 평이다.

통상 은행들은 대출수요가 없을 경우 금리를 인하한다.

10월 미국 주택 판매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3.4% 상승한 396만 채로 집계됐다. 경제상황이 탄탄해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 관세와 감세, 재정 지출 확대 등의 공약을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백

악관 입성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타 국가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기업들은 그 비용을 더해 상품의 가격을 올린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시장금리는 금리 인상·인하 기대감을 선 반영하는데, 물가 상승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월가의 투자금융회사인 레이몬드 제임스 자산운용의 존 투히그 전액대출거래 책임자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시장) 금리는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해 국채 수익률,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시장금리의 바로미터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 전일 증가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05%로 한 달 전(4.271%)과 비교해 0.034%p 올랐다.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모기지 금리가 최근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대규모 PF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 6개월 영업정지 처분

건설업 대출은 3.4% 불과 매출 영향은 크지 않을 듯

금융당국이 대규모 부동산 PF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BNK경남은행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로 확정했다. 역대 은행권에서 내부통제 문제로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지만 경남은행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BNK경남은행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제재안에는 사고 발생 당시 은행장 및 관련 부서 직원 등 28명의 개인 제재도 포함됐다.

금융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

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부과될 경우, 1년 이상 신규 인가를 받을 수 없다.

경남은행에 부과된 ‘6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제재 부문에서 신규 취급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제재다. 경남은행은 향후 6개월간 부동산 PF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없다.

국내 은행이 내부통제 부실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신한은행이 펀드 불완전판매로 펀드 업무를 3개월간 중단했고, 올해 4월에는 i뱅크(당시 DGB 대구은행)도 증권계좌 무단 개설 사태로 증권계좌 개설을 3개월간 중단했다.

당초 경남은행도 3개월 내외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경남은행은 인가 취소 직전에 해당하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예측보다 강한 수준의 제재가 결정되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빈발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제재를 통해 은행권에 철저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부동산 PF 대출 신규 취급 중단이 경남은행의 매출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을 비롯한 건설업 대출 잔액은 총 9400억원이다. 전체 기업대출 잔액 27조원 가운데 3.4%에 불과하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삼성물산 “‘한남4’ 조합원 100% 한강뷰”

지역 대표 랜드마크 조성 중점 유엔 스튜디오와 설계 협업 진행

서울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수주를 놓고 삼성물산이 한강 조망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조합원에게는 한강뷰를 100% 보장하고, 전체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가 70%에 달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총 2360세대 중 70%에 해당하는 1652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설계를 선보였다. 조합이 당초 계획한 한강 조망 가능 1052세대보다 600세대나 많은 물량이다. 1166명에 달하는 모든 조합원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한강 조망을 갖춘 단지가 지역 부동산 시세를 주도하고,

같은 단지내에서도 주거 가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강 조망 자체만으로도 하이엔드 라이프를 위한 뺄놓을 수 없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의 향후 가치 극대화 및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한강뷰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과 네덜란드 피비우스 하우스 등을 설계한 유엔 스튜디오(UN Studio)와 설계 협업을 진행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주거 가치를 높이는 조망권 특화에 집중했다”며 “한남4구역 모든 조합원에게 최상의 주거 만족도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